



피켓 대신 스마트폰

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젊은 지지자들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특정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이번 전대에는 모바일투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 표심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천 확 바꾸자” 한 목소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광주 합동연설회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이 4일 일제히 ‘공천 혁명’을 내세우는 등 인적쇄신론에 불을 댕기면서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도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4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은 ‘개혁과 혁신’, ‘공천 혁명’, ‘지역주의 타파’를 통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덧발’인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인적쇄신 바람

몰이에 나서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의 덧발인 호남 물갈이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후보는 “단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3번, 4번씩 공천 주는 낡은 정치의 종말을 선언하고, 참신한 정치신인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쇄신을 주장했던 이화영 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저한 공천개혁을 통해 당내에 수많은 젊은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이 넘쳐나는 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군포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암적 덩어리”라며 “차기 당내 내 대권 후보들은 지역구가 어렵다고 하는 곳을 찾아 출마하고, 오는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적을 높였다.

박영진 후보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민주통합당이 무조건 찍어준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인연만 갖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

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성근 후보는 “총선에서 100% 시민참여경선으로, 시민에게 공천권을 완전히 돌려준다고 했지만, 민심은 아직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당 대표 또는 지도부에 들어가면 국민에게 공천을 모두 돌려주는 선거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당권주자들이 공천 혁명을 통한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인단, 시민단체·노총이 태반

민주통합당 전대 경과 대결 격정

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추후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한국노총 조합원(90만명)들은 물론 YMCA 회원(12만명)들과, 야권통합 추진 단체였던 ‘백민총이

국민의 명령’ 회원(18만명)들, 구속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권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17만명)’ 및 ‘나는 꿈수다’ 청취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정당 밖의 시민사회 및 노동 세력들이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하면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이 후

보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세력 및 계파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흥행 측면에서 대박을 거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원 위주의 기존 정당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계 방향 당권 레이스는 미래의 정치 및 정당 구조를 선점하고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수는 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1만명을 넘어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도시경관지구 지정 5년째 미적미적 무등산 자락에 또 고층 아파트

동구청, 업자 소송에 패소 13~15층 4동 건설 승인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무등산 자락에 고층아파트 단지가 신규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6년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무등산 주변을 경관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뒤 구체적인 지구 지정을 5년 이상 무루면서 사실상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4일 “지난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 통해 A건설사가 신청한 산수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 자락 제2순환도로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3~15층 아파트 4개 동(230세대)이 들어설게 된다.

A건설사는 2007년, 2010년 두 차례 아파트사업을 신청했다가 무등산 경관지구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공고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0년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만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경관지구 예정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며 따라서 경관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점을 내용으로 하는 동구청의 처분사유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즉 광주시가 지난 2006년 ‘2020년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상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한 것이 동구청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

하로 제한받게 돼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아파트 높이를 15층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 도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안한 25개 경관지구 중 무등산 경관지구 등 16곳을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의 대표 자연경관인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무등산 조망권을 가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신규 조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내던진 셈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치인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 칼럼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강원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김재한 교수 김성열 부총장 최수철 소설가 송기도 교수

◇김재한(48)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제2회 DMZ 평화상 대상(학술)

◇김성열(56) 경남대 부총장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회장 ▲경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최수철(54) 소설가
▲서울대 불문과 동대학원 졸업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맹장’으로 당선 ▲1993 제17회 이상문학상 ▲한신대문에창작대학원장,

◇송기도(60) 전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마드리드대학교대학원 정치학박사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원장 ▲주 콜롬비아 대사 ▲저서 ‘콜롬버스에서 플라까지’, ‘권력과 리더십’

光州日報社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깊은 바다의 깊은 보습을 전하는
마린 프리스티지 뷰티 브랜드 리리코스-
이제 광주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OPEN

LIRIKOS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백화점 및 뷰티어터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062-324-2424 •현대백화점 광주점 062-552-2324 / 중동점 032-623-2170 / 대구점 053-245-2130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87 / 잠실점 02-2143-7115 / 안양점 031-463-2169 / 인천점 032-450-2158 / 대전점 042-601-2125 / 전주점 063-239-3188 / 포항점 054-230-1139 / 대구점 053-660-3026 / 부산 본점 051-810-3192 / 동래점 051-668-4184 / 청량리점 02-3707-1133 / 미아점 02-944-2138 / 일산점 031-909-3785 / 구리점 031-550-7183 에서 만나보세요 구입처 문의: (주) 아모레퍼시픽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